

중기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원활한 집행 위해 보완해야

7개 지역사업단 선정에 보조금 지급 사전 수요조사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처 간 중복 지원 우려도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500억원 규모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 자칫 ‘파주기식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분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추진됐고 사업계획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타 부처 사업과 중복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498억원, 사업운영비 2억원으로 편성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타 부처 소관 지역 주도형 AI 전환 관련 사업 현황〉

구분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소관부처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내용	- (실증랩 구축) 지역특화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처리 및 실증환경 제공 - (AI 융합 솔루션 개발) 실증랩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로 AI솔루션 구축	- (AX 인프라 구축) 연산 및 저장,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등 구축 - (기업 AX 실증지원) 산단 입주기업 대상 AI솔루션 실증과제 지원 - 기타 산단 AX 마스터 플랜 수립 등
선정방식	공모 (광역지자체 컨소시엄 대상)	공모 (스마트그린산단 컨소시엄 대상)
지원액	총 20개월간, 개소당 18.66억원 이내 (지방비 매칭 8억원 이상 필요)	총 4년간, 개소당 140억원 지원 (지방비 매칭 56억원 이상 필요)
2025년 편성액	(2023년까지 수행)	400억원(제1회 추경)

/국회예산정책처

지역 테크노파크(TP) 등 기관, 대학·출연연구소, AI 솔루션 개발기업, 수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AI사업단’을 구성하면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의 사업단을 선정, 1곳당 70억원의 보조금

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이 사업은 지역별로 AI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별도의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채 추진됐다. 그 결과 대략적인 지원단가(지역당 70억원)와 국비 부담비율(60%), 지원 목표지역 수(7개 지역)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세부 지원 산업분야, 단가산정 근거 등 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사업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부처간 중복 지원 우려도 제기했다. 산업부의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과기부의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 1차 추경에서 400억원이 새로 편성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경우 ▲AI 솔루션 구축 ▲GPU 등 AI 관련 연산 및 저장인프라 지원 ▲데이터 공유 ▲컨설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중기부의 이번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 지원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산업의 AI 전환을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하기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 기존 AI 전환 사업의 재구성 등 기본적인 범정부적 방향 설정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주도적 AI 산업 전환에 필요한 지자체 수요 파악, 중기부의 지원 역할 등이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정처는 이 사업을 지자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지원 성격이 맞지 않아 실제 사업용도에 적합한 집행비목도 설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타 사업과의 중복추진, 지원사업간 충돌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626개社 몰려

지난해 대비 1.5배 이상 신청 늘어
글로벌 스타트업, 韓 창업 관심 확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 전 세계 2600개 넘는 해외 스타트업이 몰리며 한국 창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5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참여기업 모집 결과 전 세계에서 총 2626개 팀이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한국 창업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2016년부터 이어온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창업 경진대회다.

선정된 팀들은 한국 시장 탐색과 정

착을 지원받으며, 오는 12월 컴업 데모데이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상금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80개 팀 선발 기준 경쟁률이 32.8대 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42.7%)와 아프리카(31.1%) 출신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분야별로는 IT·소프트웨어(29.6%), 식품·농업(12.5%), 헬스케어·바이오(1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기업이 61.5%, 매출보유 기업이 70.6%에 달하는 등 참여팀 전반의 수준이 높았다는 평가다. 프랑스의 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업 A사, 대만의 식품 알레르기 진단 플랫폼 B사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선정된 기업은 7월 말부터 한국에 입국해 현지화 전략 컨설팅, 법인 설립,

비자 취득, 국내 투자자 및 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 등 국내 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신청 증가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인바운드 창업정책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K-스카우터,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88개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했고, 이들은 총 404억 원의 투자와 59명의 고용, 10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유치는 한국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혁신 역량을 갖춘 글로벌 팀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코웨이-케어닥, 시니어 고객 혜택 확대

간병인, 방문 요양 등 서비스 협력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국내 대표 시니어 헬스케어 기업 케어닥과 손잡고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간병·요양 서비스 제휴 혜택을 선보인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케어닥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간병인 연결, 방문 요양, 실버타운 할인 등 시니어 고객이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추모 공간 이용 혜택 등을 지원하는 데 협력한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고객에게는 ▲개인 간병 서비스 고정가격 제공 ▲프리미엄 주거형 요양시설(실버타운) 케어홀 할인 ▲세계 5대 브랜드 보청기 최대 50% 할인 ▲전국 주요 추모공원 제휴 할인(5~20%) 등을 제공한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관계자는 “간병인, 방문요양 등 시니어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케어닥과의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케어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코웨이의 실버케어 사업 전담 자회사다. GC케어, 케어링, BnH세무법인 등 여러 전문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뉴 시니어 세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케어 서비스와 제휴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케어닥은 간병인(요양보호사) 중개 서비스와 방문 재활운동, 방문 요양 등 시니어의 건강과 일상 전반을 지원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전기車 새 기준 제시

PPE 적용된 첫 양산 모델

아우디의 준대형 프리미엄 SUV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이 국내 전기차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아우디코리아가 지난 3월 21일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은 프리미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PPE)’이 적용된 첫 양산 모델이다. 새로운 전기 아키텍처, 향상된 배터리 성능과 충전 효율,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프리미엄 순수 전기 SUV로, 아우디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외관은 세련되면서도 강렬한 SUV 스타일로 완성됐으며, 인테리어 역시 아우디 전기차 특유의 정제된 감성과 함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유럽 신차 안전도 평가(NCAP)에서도 최고 등급인 5-스타를 획득했으며, 성인 탑승자 보호 항목에서 91%라는 높



아우디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모델은 ‘퍼포먼스’, ‘퍼포먼스 프리미엄’, ‘콰트로 프리미엄’, ‘SQ6 e-트론’ 등 총 4가지 트림으로 구성됐다. 특히 퍼포먼스 계열 모델에는 다양한 기능과 편의사양을 조합할 수 있는 선택형 패키지(테크 패키지, 테크 패키지 프로, 라이트 패키지, 조수석 디스플레이 패키지)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독일 잉골슈타트 공장에서 생산된 더

뉴 아우디 Q6 e-트론은 100kW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800V 아키텍처 기반 충전 시스템을 통해 270kW 급속충전이 가능하다.

충전 시간은 10%에서 80%까지 약 21분, 10분 충전으로 최대 255km 주행(콰트로 프리미엄 기준)이 가능하다. 주행 성능은 트림별로 다르다. 퍼포먼스 트림은 최고출력 225kW,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7초가 소요된다.

/양성운 기자 ysw@

LGD, 게이밍 OLED 모니터 패널 양산 돌입

현존 OLED 모니터 중 최고수준 성능

LG디스플레이가 현존 최고 수준의 게이밍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니터 패널 양산에 돌입했다.

LG디스플레이는 독자 개발한 ‘프라이미러 RGB 탠덤’ 기술을 적용한 27인치 게이밍 OLED 모니터용 패널을 본격 생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패널은 ▲최대 휘도 1500니트(nit) ▲주사율 280헤르츠(Hz) ▲응답 속도 0.03밀리초(ms) 등 현존 OLED 모니터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 명암비가 뛰어나 밝은 환경에서도 깊은 블랙을 표현할 수 있으며,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게임에서도 잔상이 거의 없다.

핵심 기술인 프라이미러 RGB 탠덤은 빛의 삼원색인 적·녹·청(RGB) 소자를 각각 독립된 4개 층으로 쌓아 빛을 내는 구조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밝기



LG디스플레이 모델이 4세대 기술이 적용된 27인치 OLED 모니터 패널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와 색 정확도를 대폭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화면 내외부의 빛 반사를 줄이기 위해 특수 필름과 소자 구조도 개선했다. 이로써 상 비침 현상을 최소화하고, 최대 99% 수준의 반사광 차단 효과를 구현했다.

LG디스플레이는 여기에 더해 세계 최초로 540Hz 고주사율과 QHD 화질을 동시에 구현한 모니터용 OLED 패널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혜민 기자 hyem@